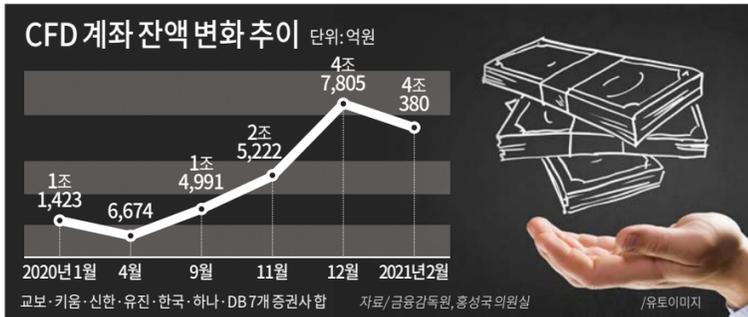


# ‘레버리지 10배’ CFD 투자자 급증... 증권사, 경쟁 점화

(차액결제거래)

CFD 계좌 수 1만4883개  
전년동기 대비 251% 늘어  
일 평균 거래대금 363% ↑  
10개 증권사 CFD 서비스  
투자 지원금 등 유치 경쟁



최대 10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차액결제거래(CFD)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FD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거래상품이다. 즉,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CFD는 최소 1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 ◆CFD 일평균거래대금 363% ↑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에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려는 사람이 늘자 CF

D 거래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8일 흥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CFD 계좌 수는 1만4883개로 전년 동기(4236개) 대비 251%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852억원에서 3950억원으로 363% 급증했다.

CFD 계좌 잔액은 지난해에만 3조원이 넘는 금액이 유입됐다. 지난해 1월 1조1423억원이었던 CFD 계좌 잔액은 올해 2월 기준 4조380억원을 기록했다.

단, CFD의 경우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투자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별도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 자격 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CFD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억원 이상이고, 소득이 1억원 또는 순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했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 잔액 5000만원, 소득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법인도 CFD 투자가 가능하나, 개인투자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투자자가 전체 CFD 투자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97.2%다.

### ◆CFD 서비스 경쟁 격화?

CFD 시장 규모가 커지자 새롭게 CFD 서비스를 출시하는 증권사들도 많아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3곳이 CFD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 이로써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증권사 교보증권, 키움증권, DG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이어 총 10곳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별로는 교보증권과 키움증권이 현재 양강체제를 구축 중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체 CFD 계좌 잔액 4조380억원 중 교보증권이 1조5067억원, 키움증권이 1조61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들도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고, CFD 거래 시 투자 지원금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온라인 주식거래 시 0.014%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통상 CFD 서비스에서 0.1~0.7%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며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40%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한 상태다. 현재 증권사들은 통상 증거금 비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부터 규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효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 기초자산 가격 또는 관련 시장 요인이 조금만 변해도 평가 금액이 크게 변해 투자위험도가 증대된다"며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CFD거래에 대한 샘플 분석을 한 결과 82%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CFD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CFD에 대한 세부적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관련 제도를 만들고 영업행위, 위험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창동주공2 예비안전진단 통과... 집값 들쭉

도봉구 일대 아파트 호가 상승세  
창동주공17 전용 36㎡ 6.2억 매물



서울 도봉구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낭보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창동 주공 19단지 아파트 전경. /정연우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낭보로 집값이 강세다.

8일 도봉구청에 따르면 창동주공2단지는 최근 예비안전진단(현지 조사)을 통과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0년 7월 준공된 750가구 규모의 단지로 전용 36~49㎡의 소형으로 구성됐다. 용적률은 203%로 지하철 4호선 창동역과도 가깝다.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첫 관문으로 D등급(조건부 통과)이나 E등급(재건축 가능)을 받아야만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도봉구내 재건축아파트들은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창동주공17~19단지과 창동상아1차 아파트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며 '방학 신동아'와 '창동주공1단지' 역시 현장 실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 창동역과 노원역에 더해 2027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정차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18일에

는 10년 넘게 지역 내 흉물로 남아 있던 창동민자역사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창동역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소식까지 더해 도봉 일대 아파트는 창동 주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5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으며, 서울은 0.12%에서 0.15%로 올랐다. 그 중 도봉구는 노원구와 함께 각각 0.16%, 0.29%씩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창동 주공17단지 전용면적 36㎡는 6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5억1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18단지 전용 32㎡는 5억3000만원, 19단지는 전용 59㎡가 9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19단지 전용 59㎡는 지난 4월 9억원을 돌파한 9억5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며 "재건축이 일찌감치 진행 중인 18,19단지는 재건축에 대한 집주인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물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 189조원 '사상 최대'

금투협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채권 발행규모 전월대비 18조 ↑

지난 6월 국내 채권금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 등으로 5년 미만 금리는 급등하고, 중장기금리는 미국 등 해외 장기물 금리 하향 안정과 수급부담 완화로 하락하는 단고장저 장세를 시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21년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을 내놨다.

금투협은 "월초 추가경정예산(추경) 부담과 한은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사, 물가 불안 등에 따라 금리 상승하면서 중장기물 금리는 상승폭을 확대했으나 장기물은 하락했다"며 "중순 이후 미국 장기금리 하락, 한은 총재의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연내 금리인상과 1회 이상 가능 언급 등으로 질서있는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를 반영하여 전구간에서 금리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6월 채권 발행규모는 회사채, 금융채 및 국채 발행 증가로 전월대비 18조2000억원 증가했고, 발행잔액은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등의 순발행이 13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240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는 기업들의 반기말 발행수요가 소폭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한 15조3000억원 기록했다. 유동성 호조에 따른 기관투자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소폭 하락했다.

6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은 기업들의 발행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월 대비 1700억원 증가한 9조3100억원 발행됐다.

회사채 수요예측금액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가 둔화되어 총 9건, 3조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요예측 전체 참여금액은 12조6680억원으로 참여율은 329.0%이며, 전년 동월 대비 22.5%포인트 증가했다.

장의 채권거래량은 금리 등락에 따른 변동성 증가 및 발행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86조5000억원 증가한 500조4000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00억원 증가한 2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는 국가신용등급 대비 높은 금리 수준과 재정부채 투자유인이 지속되면서 국제 12조7000억원, 통안채 4조3000억원, 은행채 1조9000억원 등 총 19조2000억원 순매수했고, 채권보유잔고는 9조8000억원 증가한 188조967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액은 시중은행의 발행 감소로 전월 대비 2조9950억원 감소한 총 1조원(총 8건)을 기록했다. 6월말 기준 CD금리는 한은 총재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에도 상승폭이 크지 않아 전월대비 2bp(베이스포인트) 상승한 0.68%로 집계됐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등록은 2개 종목, 1조2000억원이다. 총 291개 종목 110조2000억원의 QIB채권이 등록됐다.

/박미경기자

##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후 브랜드 통합 않는다"

양사 주택 브랜드 별도로 운영 추진  
고용안정·경영자율성 최대한 보장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마무리한 후 브랜드 통합을 하지 않는다.

대우건설의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와 중흥그룹의 '중흥S-클래스'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에 대해 중흥그룹은 8일

"대우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양사의 주택 브랜드는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주택 브랜드가 가진 강점이 다른 만큼 각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이다.

이와 관련 중흥그룹은 "대우건설 인

수 후 양사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우건설과 중흥그룹 임직원들 모두가 이번 인수 이후 최고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건설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

### 〈2021.6월말 국고채 금리〉

(단위: %, bp)

국고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금리(%)	0.955	1.300	1.448	1.739	2.092	2.199	2.196	2.196
전월말 대비(bp)	32.2	30.5	22.1	0.0	-8.7	-9.5	-9.6	-9.6